

영성 독서모임 "로고스를 입다"

하나님의 모략

- 달라스 윌라드 지음 / 윤종석 옮김 -

<6장> 천국의 투자: 명예와 부의 기만을 피하여

2015. 06. 13(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서울교회

Summary

[하나님의 모략]

제 6장 천국투자: 명예와 부의 기만을 피하여

<2가지 중요한 질문>

1. 진짜 부자? →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사는 자 / 현재 천국에 사는 자 (복된 자)
2. 선한 사람? → 깊은 동기의 차원으로 부터 자신이 대하는 모든 이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과 끊임 없이 동행하며 천국과 연합을 이룬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동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2가지 요소

명예의 덫

- ▶ 종교적 명예와 존경에 대한 욕망(바&서義)
 - 하나님 나라 자녀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
- ▶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의도하는 바
 - 사람 앞에 인정 받기 위함이 우리의 목표?
 -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함.

① 구제 ② 기도 ③ 금식

- * 위선(사람에 보이기 위해) ex: 경건해 보임.
- * 과시와 명예의 도구로 와전됨.

- 자아는 부풀고 / 영혼은 오그라들.
- 하나님은 영혼이시며 실체적 존재 임.

- ☞ 광야의 “만나” / 영혼의 “만나” = 실존
 -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

- ☞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

- ☞ 은밀함에 대한 훈련이 필요.

- 하나님만을 바라봄

- ☞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함.

- 인간의 인정을 목표로 함을 경계해야 함.

- 주님 만을 섬김으로 써만 다른 이를 섬길 수 있음.

부의 굴레

▶ 보물이 있는 곳? / 보물을 두어야 할 곳?

- 보물: 가치를 부여하여 소중히 여김.
- 물질, 명예, 사람과의 관계, 학교, 기업, 국가...
- 우리의 영혼, 의지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
-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무엇 보다 소중히 여기라.
-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투자하라. (사랑)
-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감.

▶ 삶의 중심은 마음

- 마음이란 곧 의지요, 영혼, 존재의 중심임.
- 마음은 모든 일에 방향을 정해줌.
- 예수를 따르는 삶/우리의 영혼의 시각이 분명해짐.

▶ 하나님 對 재물

- 하나님과 땅에 속한 것을 둘 다 섬길 수 없음.
-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 하늘 보물의 현재성

- 영원한 진행 중이며, 현재는 그 영원의 일부임.
- 하늘 보물을 현재의 필요를 위해 찾아 쓰고 있음.

▶ 나의 가치? / 안목의 정욕

- 필요에 따라 양식을 구함/ 땅에 보물을 두지 않음.
- 나와 새의 가치?/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 몸의 죽음을 두려워 말라./몸의 죽음, 땅의 보물.
- 외모/물리적 측면은 영원히 성공할 수는 없음.
- 백합화/솔로몬의 영광
- 타인의 의견과 물질적 보물에서 벗어나야함.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16:33)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34:19)

하나님의 모략

달라스 윌라다 지음 / 윤종석 옮김

6장 천국의 투자: 명예와 부의 기만을 피하여

요한복음 16:33~34

33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4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34:15~19편

15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여호와와 의인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여호와와 의인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Key Word]: 현재의 천국, 영원속의 지금, 종교적 명성, 바&서羲, 구제, 기도, 금식, 마음, 의도, 본질, 위선자, 자아&영혼, 행동의 근원, 존재, 만나, 실체, 은밀함, 훈련, 관계, 종교적 외면, 보물, 현재성, 하나님과 재물, 상충됨, 가치, 필요, 불안, 염려, 몸의 죽음, 안목의 정욕, 아름다움, 명예, 부, 義, 졸업식 격려사, 의인, 고난, 담대하라, 이기었노라, 건지시는도다.

▶ 피할 수 없는 2가지 중요한 질문

- ①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역사 속에 일하심)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바탕의 삶.
 → 복된 자 → 현재 천국에 있는 자
 - ② 진정한 선한 사람은 누구인가?
 - 깊은 동기의 차원으로 부터 자신이 대하는 모든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
 - 바&서羲를 넘어 천국과 연합을 이룬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동함.
- *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살아있는 연합을 통해 진리와 자유와 사랑의 힘으로 악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 (그분의 모략에 동참자)
- * 사도바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산발적인 개인차원의 노력이 아님.
- * 진정한 행복&천국 마음의 선 (마6장)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
- * 그 나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2가지
- ① 자신의 경건함에 대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
 - ② 물질적인 부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꾀하려는 욕망

■ 명예의 덫

【매혹적인 종교적 명성】

- * 종교적 명예와 존경에 대한 욕망은 <서&바義>가 됨.
 - 마음(행동의 근원)이 아니라, 보여지는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임.
- * 예수의 지적: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마 23:5~7)
- * 감투와 공적 보상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삶(특히 종교적인 삶)에서 놀랄 정도임.
 -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와 무관, 그저 삶의 일부가 되고 말아버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
- * 예수의 말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8~11절)
 -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태도가 종교적 명예에 관한 것이라면 우려해야 함.

【오직 한분의 청중 앞에 서서】

- * 형식 틀림+마음은 옳음 / 형식 옳음+마음 틀림
 - 예) 형식상 다른 이를 아버지라 부른다 하여 아버자라 여기지 못함.
 -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의도하는 바**
- * (마 6: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 * 주의 깊게 살펴볼 2가지
 - ① 선행을 감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님.
 - 선행이 알려지는 것이 본질상 잘못된 일은 아님.
 -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가 중요함.
 - 선행을 하다 사람들 눈에 띈 것이 문제가 아님, 눈에 띄려 하는 선행이 문제임.
 -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탈취하는 것임.
 - ②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가?
 - 선행을 통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 인간의 인정과 칭찬을 목표로 선행 → 하나님은 정중히 옆으로 비켜서심.
왜?)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
→ 물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와 의의 날” 하나님의 때가 온다.
→ 하나님 앞에서만 산다면, 우리의 기대(그 분 자신만을 향한 기대)에 반응하심.
사례) 오스기니스(Os Guinness) 미국 청교도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의견만이 중요한 것처럼 인생을 살았음.

- * "오직 한분의 청중"의 원리는 경건행위, 자선행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로 확대됨.
 - 사도바울: 어떤 상황에서든지 매사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앞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 ★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義"의 행위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왼손이 모르게 하라】

- * 구제 / 금식 / 기도예 대한 예화(율법이 아니라) = 올바른 동기에 대한 예화

1. 자선 행위

- * 구제(영:eleemosynary): 비영리자선단체, 기관을 지칭.
- *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나팔을 불리 말라"(6:2)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알아주기 원했고, 사람들이 알아줌. (목표달성!)
 - 자아는 부풀어 오르고 / 영혼은 오그라듐.
- * 외식하는 자: 신약에서 예수만이 사용한 단어, 17회 나옴.
 - 헬라어 외식하는 자, 위선자(hypocrite)=무대의 배우 (위장하는 사람을 지칭)
 -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중요성을 남다르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
 - 당시에 팔레스타인, 나사렛 인근 세포리스, 예루살렘, 여리고, 사마리아 등 극장이 있었음.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심)
- * 우리는 창조적 존재이므로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참 실상임.
- *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얼굴 VS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격 → 명백히 구분하심.
- * 예수의 가르침: 자선행위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함.
 -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임.
 - 예수는 행동을 넘어서 행동의 근원을 지적하심. (모든 말씀에 적용되는 일반원리)
 - 선행이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면, 자기 차를 운전하는 것 처럼, 자기 나라 말을 할 때 처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것임. 자동적인 것.
 - 사람이 있든 없든(은밀함),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행함.
- *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6:4) = 그들에게 응답하심.
 - 하나님의 선행에 창조적으로 동참하는 자 /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
 -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 맛을 누리고, 자신의 선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몇 배가 되는 영향력 보게 됨. ("하나님의 손"으로 인한 것임.)



【기도할 때】

2. 기도에 대하여

- * “외식하는 자”의 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함.
 -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해 보임.
 - 사람들은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됨.
 - 하나님께서 좋게 봐 주시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하나님 보다 사람들이 봐주는 것이 중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義.
→ 자아는 부풀어 오르고 / 영혼은 오그라들.
- *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때 자아를 의식하는 모든 태도는 깨끗이 버려야함.
 -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기도할 때, 심지어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
 - 남들이 나의 기도를 알든 모르든 초연함.
 -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함.
 - 예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6절)
 - 우리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아래 서게 됨(시 91편)
- * 기도란 진정한 신학 연구의 방편 /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길 임
 - 하나님은 영혼이시며 실체의 차원에 존재하심.
 - 바로 인간 개개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 기도의 열매= 신자의 삶에 엄청난 변화로 나타남.
 -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6절).
 - 가시적 세계의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삶의 가시적 차원에 개입됨.
 - 바울: 아무도 신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음. 은밀한 실체에 대해 움직이기 때문.
- * 기도를 기계적 과정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경고.
 - 마음의 문제가 아닌 물리적 또는 가시적 세계의 사건으로 와전시키는 오류가 됨.
 - ‘에트니코이(etbnokoi)=소리만 반복해서 말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착각함.
 - 중언부언(바탈로가시테: battalogasate) (6:7) 무의미한 반복을 뜻함)
- *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예수의 하나님/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우주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공통 관심사에 관한 지적인 대화]라는 사실을 모름.
- *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능.
- * 그 공동체는 아가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됨(6:14~15).
- * 반면 이방인은 “신”을 이용하여 소원을 이를 생각으로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
 - 사례: 사도행전 8장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에 큰 능력이 임함.
“크다” 일컫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말과 행동의 가시적 결과를 보고, 자신과 같은 계열인 마술사 업종으로 생각함. 사도들에게 그 비밀을 돈을 주고 자기사업에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
- * 천국의 기도와 그 효력
 -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열려있는 존재의 내면의 문제임.
 - 기도란 전 존재를 다해 말하는 것.
 - 결연한 의지와 분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동에 합류해 들어가는 것임.

- * 다음 장에서 집중적으로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 살펴봄.
- * 예수께서 공중기도를 금하시거나, 기도의 모델로만 기도해야한다는 것은 아님.
- * 산상수훈: 율법X 삶0 =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이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금식】

3. 금식도 과시와 명예의 도구로 와전됨

- * 금식: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정도 만큼 정상적인 음식과 마실 것을 스스로 박탈함.
 -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의 한 차원을 이루는 성격적인 행위.
- * 예수 당시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
 - 어떻게 하든 헬썩해 보이려함, 특수 화장으로 분장 방법까지 개발됨,
 - 금식중임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이기 위함.
 - 예수는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지적하심.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16)
- * 천국 생활의 한 행위로서 금식의 올바른 방향
 -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6:17~18)
 - “꾸미라”고 하신 것이 아님.
 - 은밀한 금식을 배우면 비가시적이 천국이 우리의 영육을 직접 떠 받쳐줌.
 - 육체에 거하는 물리적인 인간 실존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넘치는 힘과 기쁨을 맛보게 됨. (은밀한 근원에서 오는 힘과 기쁨)
- * 예수님: 세례와 공생애 시작 사이에 오랜 금식의 시간을 가지심.
 - 그때에 사탄으로부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는 시험을 받음.
 - 신명기 말씀을 인용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신 8:3) → 천국과 천국생활의 중요한 열쇠.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

- * 신명기8장 본문, 열쇠; “하나님의 에서 나오는 말씀”이 일차적으로 지칭한 것 “만나”
- * 만나의 뜻: “무엇이든” “무엇인가?” 라는 뜻
- * 정체불명의 물질 / 인간의 물리적 필요에 적합한 소화가 가능한 형태의 물질.
 - 이미 세상에 알려진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말씀”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것.
 - 광야에서 음식을 포함 의복과 신발도 채워 주심. (신 8:4)
 - 하나님께서 계속 새롭게 해주심. (천국 생활 훈련의 중요한 부분임)
- * 느헤미야 다시 하나님의 공급을 떠올림 “사십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사오며”(느 9:21)
- * 이모든 것이 물리적 질서를 창조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이루신 분.
- * 하나님은 물리적, 비물리적 실체를 지배하는 모든 기본 공식의 주인공.

- * 아인슈타인의 $E=mc^2$ (에너지=질량×속도²)
 -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이 물질임.(소화, 연소, 핵분열, 핵융합 과정)
 - 우리는 제한된 한계 내에서 물질을 조작해서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를 만듦.
- * 하나님께서는 이모든 것을 사용하심.
 - 오병이어 / 믿음으로 금식하는 자의 몸의 물리적 필요를 직접 채워 주심.
 - (rhema) "말씀"(마4:4)은 금식 중에 굶주린 몸의 물리적 양식이 되는 실체임.
- *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복음서의 기사(요4장)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귀한 본문임.
 -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다른 음식을 구함. /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4)
- *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면 자신과 삶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후원과 격려를 받게 됨.
 - 예수의 기쁜 소식이 인간의 조건에 대한 모호한 희망사항으로 전락하게 됨
- * 믿음이 부족할 때 성경 말씀을 "듣기 좋은 말"로 읽음.
- * 성경 말씀과 종교 전체를 단순히 이런 범주에 집어넣음.
- * 조지 산티아나(George Santayana): 종교란 "삶의 짐에 대한 서정적 탄식" 즉 짜릿한 감정에 빠지는 정도로 봄.
- * 예수님의 놀라운 삶과 사역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임.
- * 우리도 그분과 그분의 나라로 양식을 삼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보는 것은 분명 우리의 것이 됨.

【내 삶을 먹으라】

- *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 6:51)
- * 금식의 실행은 예수 자신을 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짝을 이룸.
- * 금식은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먹이시고 불드시며 새롭게 하심을 강조함.
- * 금식이란 예수와 아버지께서 당신의 삶을 우리의 삶과 영원히 연합하시는 또 다른 세계의 실체에 대한 간증이다(요14:23) - 참된 음식을 굳게 의지해야함.
 - 사례: 천국의 금식을 실천한 목사의 고백: 설교테이프 판매 2배 증가(원인파악 불가)

【은밀함의 필수 훈련】

- * 눈의 노예(아이서비스 eye-service, 오프탈모둘리안 ophthalmodoulion) (골3:22)(엡6:6):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배당하는 것.
- *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 = 남이 볼까 두려워 나쁜 짓을 안 하는 것.
- * 행동이든 무행동이든 결정적 동기는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
 -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써 그 나라에 사는 자임.
 - 인간의 인정이 동기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무관한 것을 밀쳐내고, 인간 나라에 종속되는 것임.
- * 은밀함의 훈련: 영혼과 행동에 대해 인간 의견의 지배력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됨.

- * 훈련이란 당장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어진 능력 안에서 힘을 길러가는 과정임. (행위, 동기, 보상을 인간에게 두지 아니함)
 - 남이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으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가게 됨.
 -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함.
 -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밀히 하라~ 보이면 죄가 됨 절대로 보이지 말라로 변질)
- *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5:16)의 명령과 모순이 되지 않는 이유.
 - 이런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 사랑의 율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킴.

【종교적 외면】

- * 교회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가르치심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영생의 학교로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를 지적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음.
- * (클라이드 리드 Clyde Reid)는 우리의 교회 활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쪽으로 짜여져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글을 발표함: "종교적 외면의 법칙"
 -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고 진정한 종교 체험을 막는 쪽으로 교회를 조직하며 유지하고 있음."
 - 심각한 신앙적 질문을 거의 제기하지 않음
(자기의 회의가 드러날까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 교회안에 종교적 문제에 대해 은연중에 침묵의 모의가 있음.
 - 교회가 별로 내세울 만하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이러한 모의 때문에 은폐됨.
 - 서로 마음을 깊이 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음
(마음을 열면 다치고, 부딪치고, 분노하고, 갈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함)
 -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양으로 따져 비교해본다면 충격적일 것임.
 -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이들은 이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좋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규정이 우리에게도 적용됨.
- *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겔 3:31~32)
- *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의 삶과 일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려면 인간의 인정을 일차목표나 주요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됨.
- * 어떤 경우든 주님을 섬김으로써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부의 굴레

【네 보물이 있는 곳】

- * 하나님 나라밖에서 안전을 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의 경고
 - 보물: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여 간직하는 물건, 소중히 여김.
 - 그자체로는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지극 정성으로 소중히 여김.
 - 물질만 보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 사람, 사람과의 관계, 학교, 기업, 국가의 안전과 명예 등도 보물이 될 수 있음.
- * 유대,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
- *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
- * 우리의 지혜와 안전과 성취는 그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데서만 얻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이웃도 그분이 아끼시는 대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함.
- * 사람은 누구나 보물이 있음. / 보물을 모욕, 파괴, 박탈하는 것은 치욕적임.
 - 상대의 보물을 아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중요한 부분.
- * 보물이란 우리의 영혼 또는 의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존엄성과 맞닿아 있음.
 - 보물은 때로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 있음. (예: '줄린 개' 인형을 새것으로 바꿔주었으나 슬퍼함)
- * "비영적"이고 물리적인 "외면적 물질"을 논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님.
- * 물질적 영역에서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영원한 삶인지에 대한 여부와 그 정도를 다루는 문제임. (우리 영혼의 근본적 상태를 다루는 문제임)

【좁과 동록이 없는 곳】

- * "좁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곳"(마 6:19) - 사이버공간 동일
- * 톨스토이 신앙에 이르는 여정: 모든 것이 죽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한 회의, 예수의 가르침 속에 대안을 찾음 →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6:20) 그 곳은 자연의 힘이나 인간의 악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해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임. 하나님이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영적실체의 영역에 뭔가 변화를 맞추라는 말임.
- *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투자하라 / 예수 자신과의 관계 및 그분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해야함. (이와 밀접한 또 다른 투자가 있음).
 - 나의 영향력의 반경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 우리자신을 포함하여 이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신 32:9),
- *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천국생활의 모든 측면,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임.
- * 사도바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렇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둠"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6:8~10) 이것이 바로 매일, 매시간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사는 길임.

【삶의 중심은 마음】

- * 이런 삶은 보물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실체와 본연의 관계를 되찾게 됨.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은 시각이 분명해져 만물을 제대로 대할 수 있음.
- *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1) 보물은 마음을 사로잡는다.
- * 마음이란 곧 의지요, 영혼이며 우리의 삶이 흘러나오는 존재의 중심이라는 사실.
- * 방향이 제대로 정해진 마음은 인격 전체에 건강과 온전함을 가져다 줌.
- *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본연의 가치와 관계 속에서 보게 됨.
- * 땅에 속한 것을 보물로 삼는 자는 그 시각이 왜곡되어, 사실상 체계적으로 매사를 오도함. (특정사항에 중독된 경우가 극단적인 예: 중독 대상 및 탐닉의 관계에서 봄)
- * 영혼의 눈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모든 것이 어둡게 됨(6:23), 앞뒤 분간이 안 됨.
 -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름: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 * 이 세상과 비가시적 천국을 둘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땅에 속한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서로 상충됨)
 -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면, 재정적 안전, 인정, 욕망의 성취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필경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수밖에 없음.
- * 십계명중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함.
 -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아끼고 잘 사용하는 것)
 - 이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 학생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8장에서...

【하늘 보물의 현재성】

- * 하늘 보물을 장래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생명보험)
- *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벧전 1:4~5)★
- *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보물은 현재 사용가능함.
 -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래야함.
 - 그 보물이란 현재 내 삶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 및 그 나라의 놀라운 모임과 다름 없음.
- *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히 12:22~24). → 장래가 아닌 현재.
- *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일원.
 - 영원한 지금 진행 중 / 지금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살고 있는중 임.
- * 이미 지금 나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어 있다”(골 3:3)

- *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은행에 좋은 신용을 쌓는 것 / 하나님께 좋은 신용을 쌓는 것 중 택하라면/ 답은 !)
- * 그분이 내 보물 /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신 하나님 자신이다(시 46:1)
- * 사도바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나의 가치는 새 몇 마리】

- * 우리에게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음, 현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더없이 안전한곳임.
- *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23편)
 -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 인간의 현실적 자아와 전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물리적이거나 이 땅이 유일한 실체인 것처럼 보기 때문.
 - 이것이외에 보이지 않음.
- * 땅의 것을 인간 실존의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을 경우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 받을 수 있음을 각오해야함.
- * 일반사람들처럼 우리가 “재물”을 보물로 삼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불안, 염려, 좌절임. (이는 목을 조르는 숨막히는 것과 상관이 있음) 해를 입고, 두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대책이 되기는 미흡함. 인간의 많은 문제들 중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는 것.
- *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마6:25) 목숨이 음식/ 몸이 의복보다 중요함.
- * 삶이란 하나님의 불멸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일임. 지금의 삶이 영원의 한부분임.
- * 새와 들꿀 / 새들은 필요에 따라 양식을 구함 /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음.
- * 새들은 필요에 의해서 취할 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함.
- *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돌봄. 그러나 염려하지 않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나님이 있기에 자족할 수 있음(딤후 6:8)
- * “너희가 새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의 공급을 강조해 주심.
 -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막 10:31)
 - 너희는 새들 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눅12:24) / 귀한 이유?? / 땅, 하나님 나라
- * 마 10장은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심
- ★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 몸의 죽음은 오직 땅에 있는 보물과 관계가 있음.
 -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은 이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
 - 그 결과 그들은 평생을 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굴레 속에 삼.(히 2:15)
- * 예수는 진정 두려워해야할 유일한 대상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으로 보내는 것임을 지적하심(마10:28)

【백합화】

- * “안목의 정욕” (요일2:16)
 (사도 요한의 3가지 정욕: 요1서 2:15~16)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권력욕
- * 굶어 죽을지언정 외모의 흉한 것은 못 견디겠다~
 - 외모를 보물로 삼는 이들이 많음. 키가 중요함.
 -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마 6:27)
- *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 안에서 영원한 숙명을 지닌 다함없는 영적 존재]의 매력과 아름다움과는 전혀 무관함.
 - 저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음. 물리적 측면은 영원히 성공할 수 없음.
 - 영혼의 내적 미가 빠진 아름다움은 번들거리는 치장에 지나지 않음.
 -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잠 11:22)
 -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서로 나눠보기)
- * 산자락의 작은 들꽃들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6:29)으로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광채를 흠들이지 않고 발함.
 - 우리의 치장이 아무리 최고로 치장하였다 해도 이보다 못함.
 -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안에 있을 때, 아름다움은 이제 우리의 것임.
 - 하루 만에 땀감이나 쓰레기로 사라질지 모를 들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6:30)
 -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인 ‘올리고피스토이’(oligopistoi)=예수께서 처음 만드신 말.
 - 이 단어는 복음서의 5구절에 10번 나옴.
- * 예수와 그 아버지를 아는 자: 땅의 것들에 걱정하지 않음 /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함.
- *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자신이 지니신 의(디카이오수네)에 동화되고 동참하는 일이 최우선임. 그 외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채우실 것임.(6:33)
- *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5:45)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5:48)
 이두구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의미하고 있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만이 소유하는 사랑임.
 - 이 사랑이 천국 생활에 대한 예수의 말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주제임.
- *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6:34)
- * 불안은 이전에 실망을 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인정과 부 같은 것들을 의지하던 나쁜 습관이 몸에 밴 것 임.
- * 바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 * 타인의 의견과 물질의 보물을 의지하던 옛 모습을 벗어날 때 이모든 일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 * 세상의 팔복: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 이 땅의 재물을 보물로 삼지 않으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듯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존중하되, 명예의 기만을 피하여 그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을 때에도 결과는 동일함.
- * 예수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요 15:19)
- * 세상: (인간의 본성적 능력이 역사를 통해 형성해온 하나의 구조) 인간이 누구나 그 사회 문화적 구조 안에서 살 수 밖에 없음.
 - 16세기 네덜란드, 더크 윌렌스(Dirk Willens)의 사례: 빙판 위에 쫓기고 있을 때 쫓는 자가 물에 빠져 그를 구해주었어도 채포당하여 화형에 처해짐.
 -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처형됨
- * 분명히 해둘 것은,
 - 생명이신 주님의 성품을 닮는 자들도 통상적인 문제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음.
 - 오히려 세상의 질서에 맞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음)
- * 지난 19세기 동안 보다 20세기의 순교자가 더 많음.
- * 현대 서구 교회는 제자도와 복음의 의미에 있어서 역사적 환각의 거품 속에 살아가고 있음.
- * 미국 문화를 지배하는 계몽주의적 가치관(행복 추구, 선택의 자유, 권위의 경멸)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음. 그 결과 대부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조차도 성공복음, 해방 복음, 편안한 인생관으로 가득참.
- * 야고보와 요한의 단호한 인식과 다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약 4:4)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 * 부와 명예에 의존하는 삶을 말할 때 그것이 결코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님.
- * 실은, 의지할 친구나 부가 아예 없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야함.
- * 이세상의 삶은 고된 것이며, 예수의 제자도 마찬가지다 요14~16장 예수께서 남기신 “졸업식 격려사” 같은 말씀. → 근심에 찬 친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심.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16:33)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시 34:19)

<나눔>

1. 왜? 교회에 다니는가?
2. 하나님을 믿는 진짜 목적?
3. 세상에서의 인정에 대해...